

# 環境大學院 環境計劃學科 基礎科目의 教材開發에 關한 研究：計劃理論(I)\*\*

權 泰 俊\*

## 目 次

|                     |                |
|---------------------|----------------|
| 第一章 計劃理論研究의 對象 및 範圍 | 第一節 計劃形態의 分類基準 |
| 第一節 研究의 對象          | 第二節 複雜體制의 計劃   |
| 第二節 研究의 範圍          | 第三節 配分的·刷新的計劃  |
| 第二章 計劃의 概念          | 第四節 長期·短期計劃    |
| 第一節 計劃의 概念          | 第四章 計劃過程의 管理   |
| 第二節 計劃過程의 概念        | 第一節 過程統制의 概念   |
| 第三節 豫測과 統制          | 第二節 社會工學의 管理   |
| 第三章 計劃의 形態          | 第三節 自動調節의 過程   |

## 第一章 計劃理論研究의 對象 및 範圍

### 第一節 研究의 對象

여기서 다루는 計劃理論은 主로 都市計劃 또는 地域計劃등을 專攻하는 碩士課程 學生들을 위한 教科目이다. 이같은 科目이 비단 都市計劃, 地域計劃專攻에만 限定되어야 할 講學上的 必然性은 없지만, 이 教材의 內容이 主로 公共計劃過程에 관한 理論들로써 짜여져 있고 同時에 社會體制의 여러가지 多樣한 機能에 대한 計劃的 調整(Planning Intervention)過程에 관한 研究이기 때문이다. 經濟計劃도 公共計劃의 한 類型이긴 하지만, 그에 관한 理論이나 技法들이 都市計劃이나 地域計劃의 領域만큼 多面的이고 多次元的인 社會變化乃至 發展過程에 대한 理解를 前提로 하지 아니하고, 反面 企業經營計劃은 都市計劃이나 經濟計劃과 같은 公共計劃 過程이 아니다. 이러한 뜻에서 公共計劃으로서, 社會體制의 比較的 多樣한 여러 機能의 變動過程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都市計劃이나 地域計劃이라고 할 수 있고, 本教材는 이같은 넓은 意味의 社會體制 計劃過程에 관한 研究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本教材에서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는 計劃理論들에 담겨있는 概念들은 不可避하게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計劃學科 教授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아주 抽象화된 것 들이다. 概念의 抽象化의 水準이 높다는 것은 어떤 한 概念속에 把握되는 現實的 準據의 幅이 넓음을 뜻하고, 同時에 그와 같은 概念들으로써 構成되어 있는 理論은 그 妥當性的 範圍가 넓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取扱하는 計劃過程에 關한 理論들은, 어느 時代 어느 한 地域 또는 都市內에 計劃過程의 特定한 事例에 關한 記述이나 說明이 아니고, 一般的으로 社會體制 計劃過程에 妥當하다고 主張되는 普遍的인 理論들이다. 한마디로 社會體制 計劃過程에 關한 一般理論(general theory)의 研究라고 할수있다. <sup>(1)</sup>

이같은 計劃 一般論(general theory of planning)은 計劃의 現實的 對象이 무엇이냐에 不拘하고 人間의 計劃的 行態(planning behavior)에는 共通의이고 普遍的인 패턴과 論理가 있으리라는 期待를 前提로 하고, 그와 같은 普遍的인 論理와 패턴을 探究하는 것이 計劃理論의 領域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計劃理論 研究에서 이같은 期待와 前提 自體가 往往 論難의 對象이 되고는 있지만 <sup>(2)</sup>이 科目에서 이같은 一般論의 形態를 取하는 計劃理論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는 까닭은 社會體制 計劃過程에 對한 幅넓은 理解를 돕고 장차 各分野別 計劃技法 乃至 理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필요한 批判的인 眼目을 培養하기 위해서이다.

## 第二節 研究의 範圍

一般論으로서의 計劃理論은 不可避하게 人間行態의 計劃的 論理로써 다루는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人間行態의 한 類型으로서 計劃的 行動이라고 分類될 수 있는 것의 論理的 構造와 그 展開過程을 計劃理論의 研究對象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같은 計劃的 行動論理가 適用되는 모든 活動領域을 그 研究의 範圍에 包含시킨다. 計劃 一般理論(general theory of planning)의 窮極的인 目的이 社會에서 展開되는 모든 計劃過程에서 計劃的 行態의 共通의인 패턴과 論理가 있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人間의 計劃的 行動이 展開되는 實際의 過程에서는, 어떤 計劃對象의 屬性을 하는데 必要한 知識과 그 對象을 管理 또는 操作해서 意圖하는 狀態로 變動케 하는 過程運營에 必要한 知識과 技法들이 混合되어 있다. 가령 例를 들어서 한나라의 經濟發展計劃 過程에서는, 그 나라의 經濟構造를 理解하는데 必要한 知識 乃至 情報과 同時에 그 構造의 變化를 위한 戰略的 開發過程 運營을 위한 技術과 知識이 필요한 것과 같다. Simon, Hightower, Faludi 등의 表現을 빌리면, 前者에 關한 理論들은 「計劃의 實體的 理論」(substantive theories of planning)이라하고 後者의 것은 「計劃의 節次的 理論」(procedural theories of planning)이라고 할 수 있다. <sup>(3)</sup> 다시 말해서 前者의 理論들은 計劃對象의 實體에 關한 理論이고, 後

(1) “一般理論”의 性格에 關한 좀더 자세한 것에 關해서는, 姜信澤, 「社會科學研究의 論理」, 1981, 博英社, pp. 47-49.

(2) 다음節 “研究의 範圍”에서 이에 關聯된 部分을 參照하라.

(3)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The Free Press, 1976, p. 99, Henry C. Hightower, “Planning Theory in Contemporary Professional Education,” *JAIP*, Vol. 15, 1969, p. 326, Andreas Faludi, *Planning Theory*, Pergamon Press, 1973, pp. 6-7 등 參照. 特히 Faludi는 前者를 “theories in planning,” 後者를 “theories of plann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實體的理論」과 「節次的 理論」의 關係에 關해서는 Faludi, 前掲 p. 7 參照.

자가 바로 計劃의 行動의 理論과 그 展開過程에 관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前者의 部類에 屬하는 理論들은 計劃對象에 따라서 그 理論探究의 專門領域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經濟計劃의 對象인 經濟構造에 관한 知識乃至 理論은 經濟學의 領域에서 經濟的 研究方法으로 探究되고, 自然環境保全計劃의 對象이 되는 自然環境에 관한 理解는 生態學, 衛生學, 林學 등의 領域에서 探究되는 知識과 理論등을 活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實際의 計劃過程에서 活用되는 그 計劃對象의 實體에 관한 理論乃至 知識은 모든 計劃過程에 共通된 것이 있기 어렵다. 反面에 計劃對象 如何에 不拘하고 必要한 知識乃至 情報를 어떻게 活用해서 그 過程을 어떤 論理的 節次를 통해서 運營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共通的이고 一般的인 理論이 있을수 있다는 期待가 있다. 따라서 後者에 관해서는 一般理論이 成立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고, 또 그렇기때문에 計劃의 一般理論은 「計劃의 節次的」 현상을 그 研究對象으로 해야 한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本 課程도 이같은 「計劃過程의 節次的」 論理와 그 展開過程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한다.<sup>(4)</sup>

## 第二章 計劃의 概念

### 第一節 計劃의 概念

「計劃」의 行動의 가장 一般的인 定義는, Abraham Kaplan의 表現을 빌리면, 「計劃이란, 一般的으로 決定行爲를 조장하고 合理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人間의 決定作成行爲에 있어서 合理性은 그 決定의 前提가 되는 目標를 明瞭하게 하고 동시에 그것을 達成하는 過程에 영향을 미치게 될 事實關係에 관한 分析和 評價를 해서 그 達成의 手段과 方法을 選擇하는 知的 能力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計劃이란 代案의 論理的 分析和 明細化, 關聯된 狀況의 實證的 調査와 그에 따른 事實關係에 관한 法則性的 科學的 確認, 그리고 當面 決定行爲의 意味를 評價하는 行爲」<sup>(6)</sup>라고도 定義할 수 있다.

達成하려는 目標가 定해져 있고 明瞭化되어 있다고 假定하면, 計劃의 合理化乃至 그 存在理由는 그 目標를 가장 效果的이고 能率的으로 達成하는 方法을 講究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人間이 努力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自然發生的으로 일어나게 될 事態에 對해서는 計劃的 努力이 필요치 않다. Aaron Wildavsky의 말대로, 「이미 되도록 되어있는 일을 위해서 計劃은 必要치 않다」.<sup>(7)</sup> 따라서 計劃은 그 環境에 變化를 招來하고자 하는 意

(4) 최근에 計劃對象의 實體에 관한 理論一即, 實體的 理論一이 그 計劃過程의 節次的 論理一即 節次的 理論一에 決定的인 영향을 미친다는 主張과 따라서 「節次的 理論」만의 一般化는 妥當치 못하다는 主張이 있음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Richard Warren Smith, "A Theoretical Basis for Participatory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 1973, pp. 275-295 參照.

(5) Abraham Kaplan, "On the Strategy of Social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 No. 2, 1973, p. 44.

(6) 上揭, p. 45.

(7) Aaron Wildavsky, "If Planning is Everything, Maybe it's Nothing," *Policy Sciences*, Vol. 4, No. 2, 1973, p. 134.

圖를 前提로 한다. 따라서 이같이 環境에 變化를 招來하기 위한 決定行爲를 合理的으로 한다는 것은, 그 決定行爲로 因해서 環境에 일어날 未來의 變化를 事前에 알고 그러므로써 達成하고자 하는 目標狀態와 그 達成過程에 招來될 것으로 豫想되는 變化間의 觀念的 사슬을 미리 짜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以上과 같은 一般的인 定義에 依據하면, 「計劃」의 合理性은 첫째, 環境變化에 대한 豫測能力, 둘째, 目標의 具體性, 그리고 目標達成過程에 대한 統制能力의 세 要素로서 構成될 것이다. 새가지 要素들에 관해서 좀 더 詳述하면, 計劃過程은 우선 무엇보다 앞서 環境에 어떤 變化를 招來하고자 하는 意圖의 成立으로써 始作한다. 이 意圖가운데 招來코자 하는 變化 또는 招來되지 않게끔 하려는 變化에 대한 選好(preference) 또는 評價(valuation)가 內包되어 있다. 어떤 變化에 대한 選好 또는 더 높은 評價를 해서, 그것을 計劃의으로 成就하려는 目標을 삼는다는 것은, 計劃의 目標定立의 背後 또는 그 前提로써 一種의 價值選擇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같은 價值選擇의 結果로써 세워지는 計劃의 行動目標은 단순히 그 價值로움만(worth)에 의해서 計劃的 努力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適切한 手段들이 있으리라는 判斷이 合理的으로 成立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目標과 手段의 사슬(end-means chain)에 관한 判斷은 主觀的인 價值判斷(value judgement)이 아니고,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은 앞으로 推進될 計劃過程에서 일어날 것으로 豫想되는 事實關係의 變化에 관한 科學的 調査와 分析에 根據한 客觀的 事實判斷이다. 다만 이 경우에 事實判斷은 未來에 일어날 變化에 관한 것이므로, 그 結果는 豫測的 情報 乃至 知識에 根據한 것임을 特徵으로 한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計劃」을 未來에 있을 行動의 「事前設計」라고 할 수 있다. (9) 또 이같은 豫測的 情報 乃至 知識의 量과 質이 높으면 높을 수록 「目標—手段의 사슬」의 合理性이 增進된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從來의 計劃概念은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行動이 있기 전에 目標과 手段의 사슬을 엮는 事前設計作業만을 意味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다시 말해서 計劃은 「目標達成을 위한 代案들을 觀念的으로 選擇하고 생각하는 行爲」(10) 에 그치는 것으로 定義되고, 그같은 事前設計가 一端 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實際 行動에 옮기는 過程은 「執行」(implementation) 이라는 別個의 現象으로서 把握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行動의 事前設計段階에서의 目標과 手段의 사슬은 根本的으로 豫測的 情報에 根據한 것이니, 事態가 發展해감에 따라서 항상 끊어질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1) 따라서

(8) Herbert Simon은 이같은 觀念的 사슬을 “Means-End Chain”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Herbert Simon, 前掲, pp.62-66 參照.

(9) C. West Churchman, *Challenge to Reason*, McGraw Hill, 1968, p.102.

(10) 前掲.

(11) 豫測的 知識의 妥當性은 그 豫測한바가 結果的으로 事實로 判明될 것인지 與否에 의해서 評價되는 것이 아니고 豫測當時에 그 豫測方法의 論理的 妥當性에 의해서 評價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Joseph P. Martino, *Technological Forecasting for Decisionmaking*, American Else-

이같은 目標과 手段의 사슬은 不可避하게 計劃過程이 展開되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事實의 變化에 의해서 修正되고 補強되는 것이라고 把握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뜻에서 計劃은 그 展開過程의 처음부터 끝까지 「反復되는 過程」(iterative process)이라고 把握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sup>(12)</sup>

### 第二節 計劃過程의 意味

「計劃」과 「執行」의 觀念的 區別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實用的 意義를 잃음에 따라서 計劃의 目標과 手段의 關係도 動態的인 것으로 把握하는 것이 妥當하다. 어떤 特定 手段의 價値와 그 社會的 意味는, 基本的으로는 그것으로 因해서 目標가 達成되는 程度에 의해서 評價될 것이고 이같은 評價에 필요한 情報는 計劃過程이 進行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還流되어서, 本來의 「目標—手段의 사슬」을 修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sup>(13)</sup> 이같은 還流—修正 過程가운데서 目標의 妥當性과 手段의 實踐可能性은 同時에 相互作用의으로 評價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計劃手段은 항상 주어진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道具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兩者의 合理性은 相互依存的인 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意味에서 「計劃」은 目標指向의 行動의 動態的 展開過程이고, 그 動態性은 觀念的 設計와 그의 設計實踐의 執行間에, 그리고 同時에 目標와 手段 選擇間의 反復的 還流作用關係로서 表現될 수 있다. 이같은 還流過程(negative feedback process)의 不可避性은 計劃의 構想(conceptualization) 段階에 있어서의 우리의 豫測能力의 限界와 同時에 計劃過程이 展開되는 동안의 環境的 變化의 不確實性 때문이다. 따라서 計劃過程의 合理的 管理는 결국 計劃體制의 豫測能力과 環境的變數의 統制能力의 配合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 第三節 豫測과 統制(control)

「計劃」의 合理性은 基本的으로 그에 담긴 豫測的 情報의 質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의 選擇이 그 手段의 實踐으로 因해서 招來될 것으로 期待되는 모든 波及效果를 豫測한 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合理的인 選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最善의 代案選擇은 모든 代案의 모든 波及效果를 事前에 알고 난 後에 選擇된 것이다.

vier Pub. Co., Inc., 1972, pp. 11-14 參照.

(12) 「計劃」과 「執行」의 概念을 區別해서, 前者는 行動의 事前設計로써 끝나고, 後者는 그 設計에 따라서 實踐을 하는 別個의 現상으로 把握하는 接近方法을 Andreas Faludi, 「青寫眞的」計劃概念이라고 表現한다. 所謂「青寫眞的」計劃概念과 「過程的」計劃概念에 관한 좀 더 詳細한 對比에 관해서는, *Planning Theory*, 前掲, Ch. 7 參照.

(13) 이와 같은 Feedback作用에 관해서는, Horst Rittel and Melvin Webber, "The Dilemma of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 No. 2, 1973, p. 159 參照.

(14) 計劃의 行動의 合理性에 대한 여러가지 制約條件과 그것을 收容하는 現實的 行態에 관해서는, Herbert A. Simon, 前掲書, pp. XXViii-XXXi와 pp. 38-42參照. Simon은 이같은 現實的 行態를 客觀的으로 合理的이라고 할 수는 없고, "Satisfying"한 것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그러나 計劃過程의 實際에서는, 이와같은 完全한 豫測의 情報의 確保는 대부분의 경우에 不可能하다. 計劃家의 能力의 限界, 資源과 時間의 不足, 豫測對象의 不可測한 變化등이 위와 같은 計劃의 合理性을 制限한다.

따라서 計劃過程의 現場에 있어서의 現實의 選擇은 위와 같은 豫測能力의 限界를 어떤 方法으로 收容하면서도 計劃過程의 合理的 管理를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豫測對象의 幅을 줄이거나, 計劃期間(time horizon)을 短縮하는 것 등이 恒用 선택되는 方案이다.<sup>(14)</sup>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計劃過程가운데 事前에 豫測치 못한 새로운 事態의 變化에 當面해서 그로 因해서 目標達成에 장애가 招來되면, 計劃主體의 그 事態에 대한 統制能力(control capacity)에 의해서 克服되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脈絡에서, 특히 公共計劃過程에서 人間의 合理的 計劃能力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Aaron Wildavsky 같은 學者들은 「計劃은 政治」,<sup>(15)</sup> 即 計劃의 實效성은 基本的으로 그 豫測能力에 의해서 保障되는 것이 아니고 計劃主體의 統制能力에 의해서 擔保되는 것이라고까지 主張한다. 計劃過程을 全的으로 「政治過程」이라고 하는 것은 좀 極端的인 立場이긴 하지만, 同時에 事前設計만 完全하게 되면 計劃過程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豫測된 經路를 따라서 進行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非現實的인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計劃過程의 實效성은 程度의 差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計劃主體의 能力, 그 環境의 與件 등에 따라서 豫測의 能力과 過程統制能力의 相互補完關係에 의해서 左右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두가지 能力의 配合程度에 따라서 計劃過程運營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豫測能力에 比해서 統制能力이 강한 경우에는, 計劃은, 좀 더 強力한 命令的 實踐力을 가질 것이고, 그 反對의 경우에는 좀 더 事態變化 適應的(adaptive)이거나 指標提示的(indicative)인 形態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 第三章 計劃의 形態

#### 第一節 計劃形態의 分類

여기서 計劃의 形態(forms)란 前節에서 論及한 바와 같은 計劃過程의 環境의 與件의 相異, 計劃 必要性의 相異, 其他 計劃體制의 內的, 外的 制約條件에 따른, 計劃方法 및 計劃節次의 여러가지 다른 適應樣態를 뜻한다. 計劃의 一般論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여러가지 다른 形態의 計劃過程에 共通한 論理를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理論的으로는 現實의 與件이 各樣 各色인 만큼 計劃形態도 多樣할 수 있다. 그러나 計劃過程의 基本的인 論理의 觀點에서 보면, 意味있는 分類는 實用性 있는 計劃技法과 模型이

(15) Aaron Wildavsky, "If Planning is Everything, Maybe It's Nothing," *Policy Sciences*, Vol.4, No.2, 1973. p.134.

適用될 수 있는 限度에 局限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現在 開發되어 있는 計劃技法이나 模型이 實效性있게 適用될 수 있는 類型에 局限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한 뜻에서, 여기서의 計劃形態의 分類는 (1) 計劃對象體制의 複雜性(complexity of planned system), (2) 計劃으로 招來될 變化의 制度的 含意, (3) 計劃過程이 展開될 時間帶(time horizon)의 幅 등에 따른 變形을 中心으로 한다. 이같은 分類의 意義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各各에 適用되는 計劃 接近方法과 技法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 第二節 複雜體制의 計劃

여기서 말하는 體制의 複雜性(complexity)이란, 그 體制의 變化過程의 管理가 個個 要因의 統制로써는 不可能한 狀態에 있는 것을 말한다.<sup>(16)</sup> 가령 例를 들어서 都市交通體系는 都市의 다른 部門 機能과 密接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交通體系에 대한 變化는 다른 모든 部門에 影響을 미치게 되고 同時에 그 反對도 眞이어서, 이들 모든 部門에 관련된 計劃過程管理가 필요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David Easton의 表現을 빌리면, 社會體制의 複雜性은 「어느 한 部分의 機能은, 全體가 作動하는 過程을 理解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眞正한 모습을 알 수 없는」 狀態와 같다.<sup>(17)</sup> 都市計劃過程에 있어서 이른바, 「綜合計劃」의 必要性 主張이라든가, 經濟計劃에 社會 文化的 變數도 考慮해야 한다는 主張 등이 이같은 體制의 複雜性에 附應한 計劃家들의 認識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都市計劃에 있어서 複雜體制(complex system)의 計劃을 위해서 Colin Lee가 提示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計劃模型 構成原則이 示唆하는 바 크다. 卽,

- (1) 많은 數의 變數를 다룰수 있는 能力,
- (2) 部分體制(sub-systems) 相互間의 關係, 還流作用 등을 다룰 수 있는 能力,
- (3) 時間에 따른 變化의 關係를 收容할 수 있는 能力,
- (4) 非線型的 關係를 다룰 수 있는 能力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러나 計劃過程의 實際에 있어서는 이같은 原則이 文字 그대로 받아 들여지기는 어렵고, 따라서 많은 多種 多樣한 變數들이 總括되어 버리는 것이 普通이고, 分析과 計劃技法의 便宜를 위해서 概略的 模型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一種의 總括模型(holistic model)으로써 計劃對象을 把握하고 操作하는 것이 常例이다.<sup>(19)</sup>

이러한 總括模型의 構成은 그 對象體制의 「構造的」理解에 의해서 그 妥當성이 根據지워진다. Brunner와 Brewer의 말처럼, 「構造的 理解에 의해서 資料가 몰아진 것이 아니고,

(16) W. Ross Ashby, *An Introduction to Cybernetics*, John Wiley & Sons, Inc., 1966, pp. 4-6.

(17)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Vol. 9, April 1957, p. 49.

(18) Colin Lee, *Models in Planning*, Pergamon Press, 1973, p. 132.

(19) 都市體制의 이같은 總括模型의 代表的인 것이 Lowry의 都市體制 模型, J. Forrester의 都市動態 模型등이다. Ira. S. Lowry, *A. Model of Metropolis*, The Rand Corporation, R.M. No. 4125, J.W. Forrester, *Urban Dynamics*, M.I.T. Press, 1969 參照.

물어진 資料에 構造的 理解가 賦課되는 것과 같다。」<sup>(20)</sup> 따라서 이같은 總括模型에 의한 複雜體制의 計劃은 不可避하게 總量的 管理와 敎示的(heuristic) 指針에 의한 過程運營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複雜體制의 計劃過程에 있어서 또 한가지 흔히 볼 수 있는 類型은, 計劃案의 作成은 部門別 各 專門 領域에서 獨自的으로 하되, 그 執行過程에서 이른바 「相互 調整」(coordination)을 期하는 接近方法이다. 특히 公共計劃 過程에서 各 行政部署가 社會體制의 部門別로 專擔되어 있는 경우에, 各 部署는 各者의 管轄權內에서의 獨自的인 計劃을 수립하면서, 그 計劃樹立過程 또는 執行過程에서 關聯部署間의 行政的 調整을 試圖하는 것이 그 예이다

### 第三節 配分的(allocative)·刷新的 計劃(innovative planning)

前節에서 論述한 計劃類型은 計劃對象體制의 幅(scope)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節의 類型은 그 對象體制의 狀態(system state)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計劃接近方法上 有意한 體制狀態의 分類는 均衡的(equilibrium)이나 動態的(dynamic)이나 하는 것이다. 물론 體制의 複雜性과 均衡性·動態性이 相互 衝突的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複雜 또는 比較的 單純한 體制가 同時에 動態的이거나 均衡的 일 수 있다.

어떤 計劃對象體制가 현재 均衡狀態에 있고 동시에 그 均衡狀態를 깨뜨릴 必要가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에, 計劃의 役割은 基本的으로 「配分的」(Allocative)인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配分的」이란 既存의 制度의 制約條件을 주어진 것으로 하고 그 안에서 競爭하는 여러가지 社會的 需要에 對해서 資源을 配分해서 社會全體로서의 資源利用의 效率을 極大化하는 것을 말한다. 體制論의 用語를 빌려서 表現하면, 이같은 機能은 基本的으로 「體制 維持的」(system maintenance)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體制維持的 機能이 實效를 얻기 위해서는 既存의 制度들이 比較的 安定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社會的 價値에 대한 幅 넓은 合意(consensus)가 構成員들 間에 形成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普通이다. 이같은 경우에 資源의 效率的 配分은 그 社會에 있어 資源의 最適 利用(optimiz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1)</sup>

「配分的 計劃」은 本質的으로 現在의 環境與件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동시에 既存의 行態樣式에 의해서 計劃過程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目標와 手段의 사슬은 지금까지 進行되어온 社會變化의 貫性을 基礎로 하고 比較的 短期間의 改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配分的 計劃의 接近方法은 대부분의 경우 限界의 分析(marginal analysis)과 漸進的(incremental) 改善을 위한 것이다.

이같은 配分的 計劃의 存在理由는 資源利用과 生産의 限界效率을 增進시킴으로써 長期的

(20) Ronald Brunner and Gary Brewer, *Organized Complexity*, The Free Press, 1971, p. 169.

(21) John Friedmann,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Anchor Press, 1973, pp. 52-53, John Friedmann, "A. Conceptual Model for the Analysis of Planning Behavior," in A. Faludi, *A Reader in Planning Theory*, Pergamon Press, 1973, pp. 357-363 參照.

으로 體制의 規模가 漸進적으로 成長해서 결국 全體制가 새로운 次元의 均衡狀態에 到達하게 되리라는 期待에 있다. 다시 말해서 全體制의 變化는 그 各 部分體制의 漸進인 規模의 成長을 통해서 招來되리라는 期待이다.

反面에 「刷新的 計劃」(innovative planning)은, 全體制의 變化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그 全體制 轉換의 基本的 變數(parameter)에 대한 操作을 해야된다는 論理에 立脚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全體制를 지탱하고 있는 「制度的 장치」自體를 變化시킴으로써 새로운 社會行態를 만들어 내기 위한 接近方法이다.<sup>(22)</sup> John Friedmann의 생각을 빌리면, 「刷新的 計劃」의 特徵은 첫째, 새로운 社會發展目標을 正當化(legitimize)하고, 둘째, 새로운 社會的 價置를 制度的 장치로 具現시키고, 셋째, 既存 資源의 最適한 配分보다 새로운 資源의 動員을 期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3)</sup>

經濟體制의 變化過程과 관련해서, 「配分的 計劃」과 「刷新的 計劃」의 接近方法上的 差異를 例로 들어 본다면, 後者は 「既存의 社會管理體制의 構造的 관계에 重大한 變化」<sup>(24)</sup>를 招來하려는 것임에 對해서 前者는 既存의 市場機構를 活用해서 量的 成長을 期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刷新的 計劃」過程은 대부분의 경우에 不可避하게 새로운 行態樣式을 앞장서 攄소 實踐할 수 있는 「變化의 鄉徒」<sup>(25)</sup>(change agent)들에 의해서 創案되고 推進되는 것이 普通인데 對해서, 前者는 既存의 市場機構 또는 政治 過程의 無數한 參與者들에 의해서 擔當된다. 또 「刷新計劃」過程은 基本的으로 새로운 社會制度 形成過程(institution-building process)이라고 할 수 있고,<sup>(26)</sup> 새로운 價値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있는 새로운 行態樣式·刷新的 傳播(innovation diffusion) 過程의 管理가 곧 計劃의 執行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 第四節 長期·短期 計劃

時間 要素는 計劃 論理에 있어 두가지 다른 意味의 機能을 한다. 即, 그 하나는 計劃過程이 展開될 期間으로서의 時間이고 다른 한가지는 計劃 模型에서 計劃 資源으로서 評價되는 時間이다. 이 兩者는 勿論 相互排斥인인 것은 아니다.

위 첫번째의 問題는 計劃의 目標—手段의 사슬이 어느 程度의 時間內에서 現實化되는 것이 適切한가 하는 判斷에 관한 것이다. 從來의 理論에 의하면, 이같은 判斷은 根本적으로

(22) Edgar S. Dunn, J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pp. 9-10, John Friedmann, in A. Faludi, 前掲, pp. 363-370參照. “Innovative Planning”이란 述語自體가 John Friedmann의 創案이다.

(23) John Friedmann, “Planning an Innovation-The Chilean Case,” *JAIP*, July 1966, p. 194, p. 204.

(24) John Friedmann, *Retracking America*, 前掲, p. 59.

(25) 韓國의 “새마을운동”過程에서의 “새마을指導者”와 같은 役割擔當者들과 比較될 수 있다.

(26) 이같은 意味의 “制度形成”概念에 관해서는, Milton Esman, “The Elements of Institution-Building,” in Joseph Eaton, ed., *Institution Building and Development: From Concept to Application*, Sage Pub., 1972, 參照.

事實判斷의 問題, 即 豫測의 限界에 關連된 問題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計劃期間의 判斷은 當爲論的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특히 이른바 「長期 計劃」의 必要性을 判斷함에 있어서 期間의 適切性은, 豫測能力의 限界를 超越한, 「可能한 未來」(possible futures)의 展開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判斷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所謂 「長期 展望」은 豫測이라고 하기 보다는 處方的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可能한 未來의 展開를 기다린다는 것은 計劃過程에 있어서 充分한 時間을 가지고 새로운 代案의 等場을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같은 意味의 長期計劃(long-range planning)過程에 있어서 目標와 手段間의 사슬은 항상 잠정적인 것이고 同時에 事態의 變化에 따라서 그 妥當性이 再檢討되어야 할 一種의 「發展的 假說」(developmental hypothesis)<sup>(28)</sup>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論者들에 따라서는 「長期 計劃」의 위와 같은 잠정성, 可變性 때문에 그 實效性의 擔保를 위해서 「短期的 行動 計劃」과 「長期 計劃」 사이에 「中期的」인 연계 計劃體系가 必要하다고 主張하기도 한다.<sup>(29)</sup> 그러나 이같은 경우를 위한 「中期 計劃」(middle-range planning)이란 것이 計劃의 또 하나의 類型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計劃에 있어 時間 取扱의 또하나의 次元은 資源으로서의 時間評價問題이지만, 이것은 計劃의 類型化에 關聯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以上과 같은 計劃의 類型化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計劃環境의 變化에 따른 計劃論理의 變容을 分析하기 위한 觀念의 틀로서의 意義가 있다.

計劃의 類型化에 따른 計劃過程論理의 變容

| 計劃對象體制의 狀態 | 計劃對象體制의 複雜性 |           |
|------------|-------------|-----------|
|            | 單 純 體 制     | 複 離 體 制   |
| 均 衡 狀 態    | 均衡化—最適化     | 概略的一教示的   |
| 動 的 狀 態    | 順次的一段階的     | 制 度 形 成   |
|            | 累 積 的       | 人 間 的 對 話 |

## 第四章 計劃過程의 管理

### 第一節 過程統制(control)의 概念

이 章의 目的은 위와 같은 計劃過程 管理의 手段이 될 수 있는 各種 社會統制(social

(27) Olaf Helmer, *Social Technology*, Basic Books Inc., 1966, pp. 29-30. 參照.

(28) Edgar S. Dunn, J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Johns Hopkins Press, 1971, p. 143.

(29) Amitai Etzioni의 "Mixed Scanning" approach가 이같은 생각에 根據하고 있다. *The Active Society*, Free Press, 1968, pp. 284-289. 과 Martin Meyerson, "Building the Middle-range Bridge for Comprehensive Planning," in A. Faludi, ed., *A Reader in Planning Theory*, 前掲參照.

control)方法을 檢討하므로써, 여러 다른 社會的 與件 乃至 制約條件下에서의 社會統制方法의 實效性을 評價하는 데 필요한 分析의 틀을 提示하려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計劃의 現代的 概念에는 計劃의 「執行」(implementation)過程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執行이란 本來 行動의 事前設計로서의 計劃을 實踐하는 段階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所謂「執行」은 끊임없이 變動하는 計劃環境으로부터의 새로운 情報을 이미 作成된 計劃에 環流시켜 주고 다른 한편, 그같이 作成 乃至 修正된 計劃에 따라서 環境을 統制(control)하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傳統的 意味의 「執行」은 한편으로는 「計劃의 再評價 修正」過程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計劃의 消盡」(consummation)過程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뜻에서 「執行」은 「計劃過程」의 一體的(integral)要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같은 意味의 計劃에는 知的 作業으로서의 目標과 手段의 사슬을 構想하는 設計의 努力과 이 概念의 構想으로서의 行動設計의 現實에서의 實效性을 保障하는 環境統制의 能力으로써 構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環境統制의 能力은 一種의 社會工學的 技術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볼 수도 있다.

## 第二節 社會工學의 管理

W. Ross. Ashby<sup>(30)</sup>는 社會工學의 論理를 說明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例를 든다. 即「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한 都市로부터 다른 都市에로 自動車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 運轉手는 그의 自動車와 道路線과 거리를 계속 一定하게 維持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같이 조종對象과 그 環境과의 關係를 조작해서 目的을 達成하는 技法이라고 할 수 있다 計劃이 社會工學의 操作을 통해서 그 目的을 達成한다는 것은 위와 같이 計劃手段과 그 目的 狀態와의 關係를 全計劃過程에 걸쳐 一定하게 維持해 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뜻에서 傳統的 意味의 計劃의 實效性은 위와 같은 計劃環境 統制의 社會工學的 實踐可能性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한 計劃過程이 그 안에서 展開될 環境의 與件의 現狀態와 장래 變化狀態에 관한 正確한 理解가 있어야 하고, 그같은 情報에 依據해서 計劃對象을 가장 能率의으로 조종해 나가는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都市計劃過程에서 흔히 알아 두어야 할 環境의 狀態란, 예를 들어서, 人口規模의 變動추세, 市場經濟構造, 또는 어떤 地域의 地形地勢 등이 될 수도 있다. 計劃過程의 이같은 環境의 주어진 條件을 미리 안다는 것은, 實效性있는 計劃代案의 範圍를 決定하는데 필요하고 同時에 그 範圍안에서의 代案은 計劃目標를 達成하게 되리라는 期待를 形成한다.

따라서 環境의 주어진 條件에 대한 事前情報에 根據한 社會工學은 결국 計劃目標와 既存 狀態間의 隔差를 減小시키는 過程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의 計劃過程의 社會

(30) W. Ross Ashby, *Introduction to Cybernetics*, 前掲, p. 215.

工學은 環境에 對한 一種의 誤差교정적인 環流過程(negative feedback)의 運營 技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計劃에서는 장래 豫想되는 環境變化에 對한 豫測이 事前에 比較的 正確하게 되어서, 計劃過程의 展開에 對한 誤差교정의 必要가 적은 경우도 있고, 反對로 過程의 進行에 對해서 誤差교정의 必要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같은 計劃過程管理의 社會工學的 實效性이 從來의 計劃理論에서는 計劃目標의 實效性의 根據가 된다. 따라서 그같은 社會工學的 實踐可能性(social engineering feasibility)이 計劃案의 作成과 함께 미리 豫見될 수 있으면, 計劃過程은 全體로써 좀 더 確실한 事前設計에 對해서 管理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反面 앞으로 展開될 計劃過程에서 그 環境的 變化를 거의 全히 豫測할 수 없는 不確實한 狀態에서는, 計劃過程은 不可避하게 「目標 開放的」(open-ended)으로 될 수 밖에 없다.

### 第三節 自動 調節的 計劃過程

大部分의 社會體制 計劃過程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社會工學的 計劃過程 管理能力은 極히 制限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開放的이고 不確實한 社會變動過程에 있어서는 計劃主體가 社會工學的 統制方法을 事前에 미리 設計해서 計劃過程을 管理해 갈 수 있는 能力이 극히 制限되어 있다.

이같은 意圖的인 社會工學的 過程統制能力의 限界를 補完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많은 社會計劃은 社會體制自體의 一種의 「自律調整機能」(servo-mechanism)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社會體制의 變動過程에 이같은 自動調節機能의 活用可能性을 제일 먼저 論及한 것은 1947년에 Kurt Lewin이지만<sup>(31)</sup> 그以後 Cybernetics 等の 發展으로 自動調節機能의 論理에 關한 研究에는 많은 進展이 있었다.<sup>(32)</sup>

計劃過程이 自動調節的 機能에 의해서 管理된다는 것은, 管理를 擔當하는 者가 管理당하는 對象의 一部分이 되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해서 管理機能이 計劃過程 全部에 擴散 吸收되어 있음을 말한다.<sup>(33)</sup> 그렇게 되므로써 計劃的으로 管理당하는 體制가 自體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를 即刻的으로 認知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 自體의 目標狀態에 어긋나는 狀態가 일어 나면, 스스로 그것을 교정하거나 避해가는 能力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이 경우 體制의 自己進路의 認知는 그 움고그름에 對한 價値判斷的 評價機能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本來의 特性과 機能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方向에 對한 確證能力을 意味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뜻에서 自己統制는 그 體制의 內的 安定(internal stability) 維持 機能에 의해서 正常軌道를 따라 가는 것이고 軌道 離脫을 自動調節하는

(31) Kurt Lewin, "Frontiers in Group Dynamics," Part II, B, *Human Relations* Vol. I, 1947, pp. 147-153 參照.

(32) Geoffrey Vickers, *The Undirected Society*, Univ. of Toronto Press, 1959, Karl Deutsch, *The Nerves of Government*, The Free Press, 1963.,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John Wiley & Sons, Inc., 1965等 參照.

(33) Stafford Beer, *Brains of the Firm*, The Penguin Press, 1972, p. 35.

能力을 의미한다.

計劃體制가 위와 같은 社會的 自動調節機能을 活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社會體制的 形成을 計劃의 目的에 맞추어 하는 一種의 社會體制設計(system design)를 하는 接近方法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計劃이 指向하는 바에 對한 社會的 合意를 形成하는 努力을 하는 方式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合意의 基盤을 Amitai Etzioni는 「社會指導 體系」(social guidance system)라고 指稱하기도 한다.<sup>(34)</sup> 이러한 社會的 合意의 基盤이 形成되어 있으면, 그것이 社會變動過程에 대한 一種의 規範的 指向이 되어서 그로부터의 逸脫行爲를 自律的으로 規制하리라는 理論에 根據한다.

Amitai Etzioni의 社會指導體系라는 概念이 뜻하는 自律規制機能은 한 社會의 政治社會的 構造의 現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對해서, 또 하나의 接近方法은 既存의 政治社會構造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 들이면서 그 社會의 情報流過程에 社會變化의 方向乃至 水準에 관한 情報를 體系의 投入함으로써 變化의 方向을 豫告해서 스스로 反應케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을 通稱해서 「社會指標」(social indicator)乃至 「社會情報」(social information)體系라고 한다.<sup>(35)</sup> 社會指標體系作成의 根本的인 目的은 그 社會體制的 安定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因子들의 現狀의 質的, 量的 水準을 나타내는 指標를 選定해서 그 指標上의 變化를 社會 構成員들에게 알려 주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必要한 反應을 하게하는 것이다. 社會體制的 變化를 認知할 수 있는 情報를 그 體制內部에 內面化(internalizing)해 주므로써, 體制의 自律的 決定을 도우려는 試圖라고 할 수 있다. 어떤 社會指標를 社會體制的 自律的 進化를 위해서 適切한 것이라고 볼 것인가는 多分히 計劃主體의 價値判斷의 決定에 屬하는 것이지만, 計劃過程의 管理를 社會自律調整機能을 活用해서 하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接近方法들과 그 脈을 같이 한다.

어쨌든 以上과 같은 社會的 自動調節 機能에 의한 計劃過程의 管理方法은 모두 社會體制 內部의 一種의 均衡化機能의 存在를 前提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計劃接近方法은 모두 社會體制內部에서 自生的으로 形成되는 發展目標(endogenous goal)를 計劃目標로 受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脈絡에서 본다면, 計劃過程이 그 社會의 自動調節 機能에 依據하면 할수록 計劃의 接近方法은 점점 더 前章에서 論述한 「均衡化」「最適化」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比해서 앞서 살펴 본 좀더 傳統的인 「社會工學的」過程統制方法에 依據하는 것은, 比較的 命令的이거나 刷新的 計劃類型에 가까워 지게 될 것이다.

(34)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前掲, pp. 120-122.

(35) Social Indicator體系의 概論的 理解를 위해서는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M. I.T. Press, 1966. 參照.

(36) Stafford Beer, *Brains of The Firm*, 前掲, p. 75.

## 參 考 文 獻

### 가. 外國書籍

1. Ashby, W. Ross, *An Introduction to Cybernetics*, John Wiley & Sons, Inc., 1966.
2. Bauer, Raymond A. ed., *Social Indicators*, M.I.T. Press 1966.
3. Beer, Stafford, *Brains of the Firm*, The Penguin Press, 1972.
4. Brunner, Ronald and Brewer, Garry, *Organized Complexity*, The Free Press, 1971.
5. Churchman, C. West, *Challenge to Reason*, McGraw Hill, 1968.
6. Colin Lee, *Models in Planning*, Pergamon Press, 1973.
7. Deutsch, Karl, *The Nerves of Government*, The Free Press, 1963.
8. Dunn, Jr., Edgar 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Johns Hopkins Press, 1971.
9.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John Wiley and Sons, Inc., 1965.
10. Etzioni, Amitai, *The Active Society*, Free Press, 1968.
11. Faludi, Andreas, *Planning Theory*, Pergamon Press, 1973.
12. Forrester, J.W., *Urban Dynamics*, M.I.T. Press, 1968.
13. Friedman, John,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Anchor Press, 1973.
14. Lowry, Ira. S., *A Model of Metropolis*, the Rand Corporation R.M. No. 4125.
15. Martins, Joseph P., *Technological Forecasting for Decisionmaking*, American Elsevier Pub. Co., Inc., 1972.
16. Melmer, Olaf, *Social Technology*, Basic Books Inc., 1966.
17. Simon, Her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The Free Press, 1976.
18. Vickers, Geoffrey, *The Undirected Society*, Univ. of Toronto Press, 1959.

### 나. 外國論文

1. Easton, David,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World Politics*, Vol. 9, April 1957.
2. Esman, Milton, "The Elements of Institution Building," in Joseph Eaton, ed., *Institution Building and Development; From Concept to Application*, Sage Pub., 1972.
3. Friedmann, John, "Planning and Innovation-The Chilean Case," *JAIP*, July, 1966.
4. Friedmann, John, "A Conceptual Model for the Analysis of Planning Behavior," in A. Faludi, *A Reader in Planning Theory*, Pergamon Press, 1973.

5. Hightower C., "Planning Theory in Contemporary Professional Education," *JAIP* Vol. 15, No. 5, 1969.
6. Kaplan, Abraham, "On the Strategy of Social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 No. 2, 1973.
7. Lewin, Kurt, "Frontiers in Group Dynamics," Part II, B, *Human Relations*, Vol. 1, 1947.
8. Meyerson, Martin, "Building the Middle-range Bridge for Comprehensive Planning," in A. Faludi ed. *A Reader in Planning Theory*. Op. Cit.
9. Rittel, Horst and Webber, Melvin, "The Dilemma of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 No. 2, 1973.
10. Smith, Richard Warren, "A Theoretical Basis for Participatory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 1973.

#### ㉔. 國內書籍

1. 姜信澤, 「社會科學研究的論理」, 서울:博英社, 1981.